

창원 SMR 생산기지의 성공적 조성과 SMR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진형익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 SMR 생산기지의 성공적 조성과 SMR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진형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
----------	----

발의연월일 : 2026. 7. 16.

발 의 의 원 : 진형익 · 박영주 · 권순재 · 하경석 · 배명갑 ·
감규상 · 변보미 · 김원일 의원(8명)

찬 성 의 원 : 류성국 · 문순규 의원(2명)

1. 제안 이유

- 지난 3일 정부가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26.7.3.)에서 영남을 SMR 핵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총 312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음
- 두산그룹도 SMR · 대형원전 · 가스 · 수소터빈 분야에 약 5조 1천억 원 투자 계획을 통해 창원을 세계적인 SMR 생산기지로 도약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려함
- 이에 따라 원전 주기기 제작기술과 고속련 인력, 다수의 소재 · 부품 · 장비 공급망이 집적된 국내 최대 원전 제조 생태계를 보유한 창원에서 산업 기반의 준비가 필요함
- 또한, SMR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산업화하기 위해 법률상 산업생태계 전주기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함

2. 주요 내용

- 정부가 영남권을 SMR 핵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함

- 정부와 주요 기업은 영남권에 총 312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개정할 것을 촉구함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실(의전비서관),
기획예산처(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창원 SMR 생산기지의 성공적 조성과 SMR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26년 7월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통해 창원을 소형모듈원자로, 이른바 SMR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주요 기업은 영남권에 총 312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두산그룹은 SMR과 대형원전, 가스·수소터빈 분야에 약 5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창원은 두산에너지빌리티를 중심으로 원전 핵심기기 제작기술과 숙련인력, 다수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핵심 생산 거점이다. 이러한 산업 기반은 창원이 SMR 생산과 산업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강점이다.

현행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SMR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생산과 상용화, 수출로 연결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핵심 기자재 공급망 안정화, 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같은 산업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과학기술과 에너지 정책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과 공급망 안정화, 상용화와 수출 지원, 진흥특구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현행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 제도가 마련될 경우, 창원이 보유한 원전 핵심기기 제작 역량과 산업 기반, 국가 원전 산업에서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원의 진흥특구 지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의 창원 SMR 생산기지 조성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대한민국 SMR 산업의 성공적인 상용화와 수출산업화, 창원 원전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SMR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 공급망 안정화 및 기업 지원 근거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 제도가 마련될 경우, 원전 핵심기기 제작 역량과 관련 산업 기반이 집적된 창원시가 진흥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

2026년 7월 27일

창 원 시 의 회